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3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청장년부 공과 제 13 권>

주제: 영적인 유익

공과	제목
제157공과	자비
제158공과	평안
제159공과	의사소통
제160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제161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제162공과	신유
제163공과	지혜
제164공과	인도
제165공과	용기
제166공과	원수에 대항하여 싸움
제167공과	구원
제168공과	양식과 물
제169공과	영생

들어가면서

갓 태어난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춥거나 불편할 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울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그들은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 안전, 수용, 내면의 평안,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필요와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13권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 공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라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행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KJV흠정역 마 5:7).

제157공과 자 비

성경본문: 요한복음 8:1-11 ; 디도서 3:3-7

보조본문: 창세기 18:23-33, 19:16

요절: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예레미야애가 3:22)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예수는 거룩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요구조건들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셨다. 예수님은 이번엔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홍수같이 쏟아 부으시어 모든 인생들로 유익을 얻게 하셨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롬 5:1-2).

1. 사전에 의하면 자비란 “공의가 처벌을 원할지라도 이를 용서하는 동정심”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의 기사에는 자비란 단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원하였다면 왜 그들은 재판장에게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가?

3.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요한복음 8:9절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만일 그들이 가책을 받았다면 그 중 하나라도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다 물러나 버렸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4. 율법이 요구하는바 공의대로 하자면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해야 했다(레 20:10).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셨나?(신

17:6).

5.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을까?

6. 창세기 18:23-33절과 19: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자비를 보였는가?

7. 디도서 3:3-7절 가운데서 3절에 나오는 사람과 7절에 나오는 사람 간을 대조하여 보라. 그런 후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양자 간의 차이를 가져온 요소들에 대하여 묘사해 보라.

8.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자비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의 자비하심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목록의 얼마를 기록하여 보라.

해 답

1.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형벌을 피할 길을 제시하여 주심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후에 처벌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전으로 주셔서 율법을 파기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루시게 하신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잠 29:1). 죄인에게 임하는 날마다의 자비와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을 때에 임하는 그 온전한 자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바란다.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의에 관심이 있었을 리가 없다. 그들은 그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줄 기회를 예수님에게 제공한 꼴이 되었다. 여인이 자비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자비를 보였는가? 자기를 고소하고자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읽으셨던 예수님은 반면 여인의 마음에서 자비를 탄원하는 마음을 읽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

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일체 정직한 것이 지혜이다.

3.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것은 분명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심은 그들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요 16:8).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면 자비를 입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함으로 아무 공훈도 입지 못하고서 물러간 것이었다.

4. 그 율법은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시행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달아나버리고 없는 지금, 여인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하 는바 처벌과는 무관하게 되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고 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으므로 (요 1:29) 율법의 모든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시행하 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셨던 것이다.

5.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는 자비를 뜻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여인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심이었다. 하나님은 무슨 명령이든 먼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 고자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역시 그의 자비이다.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죄를 이기 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부여받는다. 이를 깊이 생각하여 말씀 위에 여 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한다(요 5:14 ; 롬 6:12 ; 사 1:6, 55:7 ; 고후 5:17).

6. 아브라함이 열 사람의 의인을 위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사고 구했으나 그만한 의인의 수조차도 소돔에는 없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은 천사들을 시켜 롯과 그 처와 딸들을 구하여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 도 그들의 손을 직접 잡아서 성 밖에까지 끌어내기까지 하시면서! 이처럼 하 나님의 자비는 각 사람 개개인에게까지 미치는 세밀한 것임을 유념하시라!

7. 3절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묘사한 것이고, 7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 로 구원함을 받은 의인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다. 이 사실은 각 사람이 하나님 께 나아와 자비를 구하여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속에 부어 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온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죄 의 씻음과 성령의 증거 하심이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8. 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유의 은혜와 육체적, 물질적인 제반공급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개 인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염두에 두고서 답하여 보기를 바란다.

제158공과 평 안

성경본문: 마가복음 4:35-41, 5:1-20

보조본문: 요한복음 16:33 ; 이사야 57:20-21

요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3)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이적을 행하신 구주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하다. 그 당시 주님은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분은 지금도 그러하다. 그 분은 그 때에 바람을 잔잔케 하셨으며 노호하던 바다의 파도를 명하여 고요하게 하셨는데 그 분은 바로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하다. 격랑 이는 못 사람의 삶의 파도들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1. 오늘본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의 묘사는 이러하다 -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막 4:37).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급박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편히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2. 주님의 잠을 깬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주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나?

3.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태도를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역시 비슷한 경우에 처하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사건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교훈을 말해 보라.

4. 제자들은 폭풍이 잠들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라고 말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나타난 사례들을 써보라 (마 14:20,25 , 17:27, 21:19). 이런 이적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자세를 가져야 하나?

5. 귀신들린 사람의 처하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여 보라.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몰고 왔는가?
6. 귀신들린 사람의 상태를 개선시켜 보려고 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들은 어떠하였는가?
7. 귀신들린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가 나음을 받은 증거는 무엇이었나?
8. 성 사람들은 그 이적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고침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길 원했는가?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9.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나타나신 목적을 말해 보라(요일 3:8).

해 답

1. 예수님은 일체의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만을 보이셨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문제들과 염려,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평안과 확신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2. 주님의 잠을 깬 것은 그의 제자들이었다. 주님은 즉시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는 “잠잠하라! 교요하라!”고 명하셨다. 이 몇 마디에 그만 그 사납던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다. 당신의 경우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게 되는 폭풍 같은 시련들이 있었는가? 그 중 몇 가지를 기록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 폭풍들이 잠잠해 졌는지도 써 보라.
3.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상황이 때로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은 자주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만일 네가 믿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등등. 사람들이 종종 사로잡히곤 하는 두려움들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 해 보라. 당신 자신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경우를 써 보라. 어떠한 두려움을 몰고 오는 상황이나 환경도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해소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4. 예수님은 몇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와하고도 5천명에 달하는 장정들을 먹이셨으며, 바다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낚은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들어 있음을 다 아셨으며, 무화과나무가 열매도 없이 잎만 무성하자 저주하시어 말라지게 해버리셨다. 이 모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섬기려는 소원을 늘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셨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소홀히 하거나 거절한다면 영원한 저주 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5. 귀신들린 사람은 죄의 결과로 귀신들의 힘에 사로잡힌 것이다. 지금도 자기 영혼을 죄로 마귀에게 팔아 버리면 동일한 비참한 결과들이 생겨난다. 지금도 귀신들린 이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고 있다.

6. 사람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인간의 어떠한 구제책도 마귀의 능력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앞에도 어떠한 불가능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중에 마귀에게 붙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옆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아니면 “잇을 수 없는 찰리 형제”(79번) 같은 간증 전도지를 참고하고 이를 이용해 화제로 삼아 보라.

7.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에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았다. 이 이적과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이적과 비교하여 보라.

8.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에서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구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가고자 원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증인의 사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9.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야 말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참 평안과 해답을 제시하여 주실 수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159공과 의사소통

성경본문: 열왕기상 19:1-18

보조본문: 누가복음 24:13-35

요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이사야 65:24)

하나님의 역사는 전래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다’고 하여 이후의 그의 역사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성령을 늘 경외하며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1.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신앙의 큰 승리를 얻음으로 그의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도 최절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급변하였다.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고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쓰고 이 사건에서 얻는바 교훈도 적어 보라.

2. 하나님은 낙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교훈하고 격려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그 선지자는 호렙산까지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질문의 형태로 두 번째로 임하였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흠정역 성경). 당신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3. 엘리야는 잔잔하면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입구에 섰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지진이나 폭풍이나 불의 나타남을 보았을 적에는 왜 그와 같은 존경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4.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택하신다. 이 방법의 몇 가지를 적어 보라.

5.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감동이나 마음속의 생각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부문제로 당황할 경우가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보라.

6.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써 자연력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출 7:10). 그런데 물리적인 이적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한 교통함에 청중하고 반응한 결과를 말해 보라.

8.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 답

1. 엘리야는 낙담하여 지기 목숨을 위하여 광야로 도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이를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악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덧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경건하고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을 단호히 물리쳐 버리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는 낙천주의자가 되기 바란다.

2. 그 질문은 엘리야의 마음을 구하는 질문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런지, 생각을 표현하여 보자. 하나님의 관심어린 그 물음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온 영혼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성경은 “네 영혼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가 네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다(고후 13:5).

3.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함을 자연의 여러 가지 물리적 위력(증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을 그가 알았으므로, 엘리야는 자연의 위력에서 보다는 그 같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인격적 신이심을 더 깨달은 것이다. 주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의 불가사의한 위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자!

4.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쓰시는 것들로써 성경책과 간증과 찬송과

설교와 성령 충만한 기도와 목사와의 신앙상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5.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감동이나 교훈 등을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처지에 관하여 의심이 일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혼란이나 고통스러운 복잡한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다(고전 14:33).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위에 권위하는 자로 세워 두신 목회자들에게서 조언이나 상담을 청하는 것도 유익하다.

6.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그로 인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이적이나 표적을 많이 보여 준다 해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과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등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의롭게 되기보다는 죄 가운데서 살기를 더 바라고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인에게 임하시어 그의 죄를 보이시고 양심으로 괴롭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시작되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7. 엘리야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드릴 수가 있었다. 그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울 것과 수리아의 한 왕과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될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도리어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자한다면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착한 사람(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욥 37:23).

8.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여 주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요구들을 아뢰어야만 한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요, 이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가는 날마다의 길을 기뻐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렐 29:11).

제160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본문: 창세기 6:5-22 ; 히브리서 11:7

보조본문: 시편 91

요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이사야 43:2)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8식구를 방주로 보호하셨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1. 히브리서 11:7절은 완악한 세상에 임박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개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5절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홍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경고를 받고 있는가?

2. 노아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면 그분의 지시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3.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때때로 이상하게 생각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그는 우리 발의 인도자며, 빛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깊은 시험을 만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이사야 43:2).

4. 노아 때의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였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였던 특별한 경우를 하나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 해보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이야기 해보라.

5.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편 91:11 ; 다니엘 6:22 ; 사도행전 12:7절을 참조하라.

6.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약속되어 있다. 아래의 성구를 참조하여 보호하심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여 보라.

시편 34:7 시편 41:1 마태복음 6:33

7.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

8. 그리스도인으로써 때때로 자동차 사고나 큰 펌박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9.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보호하심은 무엇이겠는가?

해 답

1.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될 일에 관하여 경고하신다. 구원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 한때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으로 되돌아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온전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노아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었다. 만일 노아가 자기 방법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3.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은혜의 체험을 나누도록 격려하라. 시험의 물이 깊고 불이 아주 뜨거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 실망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한다.

4. 각자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잠재적인 두려움에 둘러 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보호의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5.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천사를 파송하는 전능자이심을 보여 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14).

6. 차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난한 자를 돌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확인할 수 있다.

7.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을 알지 못함으로 보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어려움의 면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 아래 있다.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이에게는 비극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생각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고통이나 시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연단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시험이 축복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9.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하심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휴거이다. 우리는 무서운 재난이 이 지구를 삼키기 직전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무서운 재난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될 것이다.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함을 모두 멸망 받은 사실을 상기하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제161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경본문: 창세기 28:10-19, 32:24-30, 33:1-4

보조본문: 이사야 6:1-3 ; 고린도후서 1:3-7

요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고린도후서 1:3)

사전에서 “위로하심”이 라틴어 “콤(함께)과 ”포르티스“(힘)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먼저 ”위로하다“의 동사의 의미는 ”~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다“이다. 또 다른 의미는 ”위로하다“이다. 전도하다 많은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고린도후서 1:5)라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붙잡아 주심의 위로“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

1. 창세기 27:41-46, 28:1,2절에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곁을 떠난 두 가지 이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그는 형, 에서를 숙여 형의 노역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며, 둘째로 외삼촌 가정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야곱은 첫째 날 50마일을 여행하여 북쪽 벤휈로 갔다. 그는 매우 피곤하여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나?

3. 절망의 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를 상기해 보고, 이런 경험을 성도 간에 나누어 보라.

4. 창세기 29장-31장은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생활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곳에서 야곱이 20년간 생활하면서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 보라.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 생활하는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5.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가? 아래의 성경 구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의 주요구절을 쓰라.

창 28:7 창 28:22 창 31:13 창 32:10

6. 야곱이 천사와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을 하였나? 그가 씨름에서 승리한 후 어떤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되었나?

7.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친구, 가족, 직장 등을 잃어버린 상태에 처할 수 있다. 그때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욥기 23:8-12 참조)

8. 예수님께서 마 9:22절에서 그를 따르는 여자에게 “딸아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특성이 발휘되어야 하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위로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가?

해 답

1. 당신이 부모와 함께 여러 해를 보내고 야곱과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 멀리 떨어진 하란에서의 산 생활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혼자였고 가는 길목엔 많은 위험이 뒤따랐으며 아무런 친척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야곱의 꿈을 묘사하기 위하여 본 공과를 참조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위로하셨다. 그날 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한 위로였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변화된 사람임을 알았다. 그가 홀로 정처 없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심을 야곱은 깨달았다.

3.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약 1:17)라는 말씀을 기억함이 유익하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테살로니가전서 5:18)에서와 같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이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서로 나누도록 하라.

4.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위로하셨으며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창세기 28: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 창 30:27절을 참고하여 보면 라반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 날마다의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한다.

5. 차례대로 “순종”, “십일조”, “하나님의 인도에 따름”,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그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야곱의 승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형 에서와 부하 400명이 야곱과 화친하러 왔다. 야곱과 가족 및 소유물은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으로 보존되었다.

7. 욥이 만난 시험을 상고해 보라. 그를 위로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았는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8. 그 여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믿음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의 밑바탕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용기를 주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 본 공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오묘함을 토의해 보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7,18).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제162공과 신 유

성경본문: 마태복음 5:22-42 ; 야고보서 5:13-16 ; 이사야 53:1-5

보조본문: 시편 103:1-5 ; 마태복음 8:16,17

요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19)

성경은 여러 번 육체의 병 고침에 대한 기사를 밝히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서 13: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신유는 유효하다고 믿어야 한다.

1. 본문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 병이 위독하여 거의 죽어가는 소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과 예수님만이 그 소녀의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문 5:25-34절은 예수님이 소녀의 집으로 갈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즉시 나음을 얻었다고 했다. 소녀의 아버지와 여인이 병 고침을 얻고자하여 내 보인 속성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

2. 기적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즉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병 고침 받은 것이나 혹은 당신의 이웃이 병 고침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일례를 제시해 보라.

3. 많은 사람들이 신유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에 행하여졌고, 기적의 날은 이제 지나가 버렸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16:17,1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4. 마가복음 6:5-6 ; 마태복음 13:58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방해 받은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5. 병 고치는 것과 관련하여 때로는 고통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막 9:25-29절에 이것의 한 예가 나타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응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

6.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일에 그들이 질병에 걸리면 믿음의 부족,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화를 들고자 한다. 다음의 성경귀절에서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 9:3 시 119:71 고후 12:7-9 욕 23:10

7. 성경은 우리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말하는가?(요 5:14,15)

8.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야 할 때에 교회의 장로에게 갈 수 없거나 초청할 수 없을 경우, 행 19:11,12절에서 성경적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9. 신, 구약은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님의 속죄로부터 이루어진 것 중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사야 53:5 ; 뱀전 2:24절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진리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해 답

1. 딸과 아버지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마태복음 15:28 ; 마가복음 2:5 ; 누가복음 7:9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신 예화를 읽어 보라. 이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책임인 것을 결론짓게 된다.

2.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계심을 일깨우며, 병 고침 받은 은혜를 서로 서로 이야기 해 보라. 신유에 대한 본 교회의 소책자들을 참고해 보라. 신유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망의 빛”도 참고하라.

3. 그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믿은 자들에게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시대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어느 시대이고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마가복음 16:18)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4.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라.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간질병 아들의 아버지가 그같이 기도했다 (막 9:24)

5. 예수님은 이런 치료는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응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6. 제시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것이다. 차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위하여”, “성령의 단련(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왜 병을 치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제기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유를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를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병든 자를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통에 대한 인내를 연단하기 위해서이다.

7. 교회의 장로(목사)들은 환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여야 한다. 기름에는 아무런 약효도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막 6:13절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복음전파를 하도록 보내셨을 때 그들이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8. 병자들이 바울이 손수건이나 옷자락을 취할 때 병 고침을 얻게 되었다. 또한 기름 바른 손수건이나 교회문서 및 소책자를 나누어 주기 전에 전도자나 목음 사역자들이 그것들로 병자의 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병자에게 얹고 기도할 때에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행운을 구하는 것으로, 혹은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베드로전서는 이사야 53:5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영혼의 치료함인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마태복음 8:16,17절은 육체의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다.

제163공과 지 혜

성경본문: 다니엘 1:17-20, 2:1-13, 24-30

보조본문: 야고보 3:13-17 ; 욥기 28:12-28 ; 잠언 4:5-13

요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전도서 2:26)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근원이 다르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다준다. 요절본문 전도서 2:26절과 야고보서 3:13-17절을 주의하여 읽어 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따를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얻을 수 있다. 이사야 11:2절과 고린도전서 2:10-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1.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약 3:13-17).

2. 욥 28:12-28절을 읽고 우리가 추구하나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근원을 열거하라.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3. 전도서 2:26절에 따르면 주님은 그의 보시기에 착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4. 하나님의 자녀는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불신자들의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 지의 예가 오늘의 성경본문에 예시되어 있다. 느브갓네살왕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그 나라의 마술사와 점술가의 지혜보다 10배 이상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후에 일어난 결과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5.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얻었는가?(다니엘 2:17-23).

6. 다니엘서 2장 30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특성이 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지 설명하라.

7. 열왕기상 3:7절을 읽고 솔로몬과 다니엘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라.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가 열왕기상 3:11-12절에 나타나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8. 겸손한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9. 야고보서 3:1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관련한 많은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속성이 하나님 지혜의 일부가 됨을 예화로 제시해 보라.
순전함 화평 친절 간청 자비 선한 열매 맺음 편견이 없음 위선이 없음

10.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산다. 지혜자는 잠언 4:7절에서 몇 가지 충고를 준다. 그의 충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라.

해 답

1. 지혜란 ‘지식과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전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다.

2. 욕기 28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라. 지혜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에게 구하라. 해답은 본문 28절에 나타나 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는 다니엘에게 능력과 생명을 가져다주었다. 이 지혜는 누구나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3. 여러분들은 포괄적인 속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가 6: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4. 다니엘 2:10,11절에 왕의 요구에 대한 갈대아 술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 왕의 법령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도 보라(다니엘 2:16-18).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박수나 술객들의 지혜는 자신의 통찰력과 지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곤궁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는 믿음, 지혜 및 인도하심이 어려움에 처한 다니엘에게 역사하심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5. 본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준다. 그에게 날마다 나아가야 됨을 말한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6. 겸손을 가져야 된다.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다.

7. 솔로몬과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졌음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 주셨다.

8. 지혜와 교만을 소유한 자는 모든 영광을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3번 문항을 참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이런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라.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이런 특성들임을 설명해 보라. 반대로 야고보서 3:14-16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다.

10. 진리,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약속을 완전히 순종함, 그리스도와의 교제, 동료 간의 아름다운 관계 등을 잘 요약하여 본문항의 질문에 이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제164공과 인 도

성경본문: 출애굽기 13:17-22, 14:19-31

보조본문: 사무엘하 5:18-25 ; 시편 29:1-11 ; 사도행전 16:6-10

요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이사야 30:21)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으려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한다.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쫓는 애굽 백성에게는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낮이 되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시온의 돌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반석이 되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1.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였다. 이 방법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첩경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는가?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행하심에서 오는 복들을 열거하라.

3.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기를 원했다. 이 경우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반대 세력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가?

4.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였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였는가?(출 14:13,1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롬 8:31).

5.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게 하여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 이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바람이 물을 밀어 내어 홍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도하지점에서 물의 깊이는 80피트, 그리고 길이는 12마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홍해를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상

태를 유지하게 한 바람은 또한 모든 사람과 동물을 날려 버릴 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갈 수 있게 한쪽에 벽을 만들어 물을 갈라놓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백성을 멸망시켰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라.

6. 사무엘하 5:18-25절에서 다윗은 유사한 두 개의 전쟁에 처하게 된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음을 알았다. 우리는 다윗의 성공을 무엇에 돌리겠는가?

7.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걷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당신의 해답을 입증시킬 수 있는 성경적 예화를 제시하라.

8.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행 16:6-10).

9.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해 답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게 될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2. 불기둥은 밤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이고 구름기둥은 햇빛의 열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불기둥은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되었다. 한 광원으로부터 같은 순간에 어떻게 밝음과 어두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하여 보라. 그것은 광원에 대한 그 사람의 위치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전등을 비출 때 당신의 등이 빛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당신이 전혀 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등을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므로 인하여 이 불기둥은 그들에게 밝음이 되었고 애굽 백성에게는 어두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3.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많은 유혹을 한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잡으려다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므로 그들의 가는 길은 안전

하였다(시 73:24).

4.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승리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천사가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우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한 경우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다. 롬 8:31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해보라.

5. 애굽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그들의 군대 모두가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전차 바퀴를 떼어 내어 그들을 어지럽혔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바다위로 내밀라고 하셨다. 갈라졌던 바다는 원래대로 되었으며 애굽 군대는 모두 빠져 죽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에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만 죄인들을 자기 길로 가게 버리신다는 것을 상기 하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홍해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른 길 같았으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귀는 큰 약속을 준다. 그러나 “궤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잠 13:15)고 하였다.

6. 사태가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자기 지각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각 전쟁에 대하여 다르게 지시하였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지혜자 이시다.

7. 자기 방법을 좇게 되면 재난을 가져오는 경우의 예를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한다. 요나(욥 1:1-3:15), 여로보암(왕상 13:4), 불순종한 선지자(왕상 13:11-24).

8.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좋은 경우이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못한 지역과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애쓰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자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는 한 번 거절 받게 되면 하려던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신실하시어 기한 내에 그의 뜻을 보여 주신다.

9.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되면 본과의 결말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제165공과 용 기

성경본문: 사무엘상 17:19-51

보조본문: 사무엘상 14:1-16

요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
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9)

다윗의 외침은 골리앗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그의 용기는 사기충천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동안에는 사자, 곰, 거인 등 그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울이 그를 전장에 나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다윗은 계속 자기를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물매, 목자의 채구, 시내의 매끄러운 돌 다섯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다.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를 힘입고 다윗은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1. 다윗은 아버지 양떼의 양을 취하려는 사자와 곰을 죽였다. 이러한 경험은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2. 다윗의 태도와 사울 왕 및 그의 군대의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3. 다윗이 왜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고 물매와 돌 다섯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나?

4. 골리앗은 검과 방패와 갑옷, 투구로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아왔다. 우리는 물리적인 갑옷과 투구를 쓰지 않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성경은 이러한 무기들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가?(엡 6:16,17)

5. 사울 왕이 어려운 경우에 처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요나단과 친구는 승산이 큰 적과 사울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여 다윗이 혼자서 적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일할 때 받은 유익한 점을 제시해 보라 (신 32:30 ; 마 18:19,20)

6.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데 매우 대담하여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젊은 여자가 베드로를 고소하였을 때 그의 용기는 어떠하였는가? 왜 그랬던가?(눅 22:54-62)

7. 복음의 투사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훈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악과 싸울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준 여러 가지 권면을 나열하여 보라(딤후 6:11,12).

8. 우리의 용기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의심과 공포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고 여러 번 권고를 받는다. 다음 성경을 참조하여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지를 써 보라.
히브리서 13:5, 6 이사야 12:2 잠언 3:24, 26 여호수아 1:9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일을 서로 이야기해 보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 찬송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용기를 통하여 오며,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에 처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한다.

10. 성경에 보면, 적과 대치하였을 때 용기 있게 맞서 싸운 신앙인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투는 대부분 실제적인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다. 승리하여야 할 용기가 요구되는 정신적인 시험과 육체적인 시험을 나열해 보라.

해 답

1. 다윗은 이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것으로 확신했다. 본문 37, 46, 47절은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가르쳐 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였다. 그는 대항하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과거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하라.

2.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면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3. 다윗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아 보라. 그는 익숙치 못한 장비로 사울 수 없었다. 그는 물매, 목자의 재구, 돌 다섯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잘 사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외에도 복음의 다른 전신갑주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용기를 준다. 바울은 복음의 갑옷과 투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다른 많은 위험을 당하였을 때, 이것으로 승리하였다(고후 11:24-28).

5. 그리스도인이 함께 일할 때 얻는 유익한 점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믿음은 동지와 함께 영적으로 단합할 때 큰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과송하였을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눅 10:1).

6. 베드로의 용기는 없어졌다. 베드로의 이 경우를 생각해 보라. 베드로의 용기와 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므로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졌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달라졌다. 처음에는 젊은 계집아이를 무서워하였으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후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7. 권면의 내용은 세상적인 것을 피하고, 의를 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성경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선한 일

군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큰 용기를 가져다준다.

8. 차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 “주 여호와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 “여호와와는 우리가 의지할 자 이시기 때문”,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위에 제시한 성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라는 말씀을 붙잡으라.

9. 참여한 자에게 용기를 가지게 한다. 축복을 받은 경험을 생각해 보라.

10. 이런 것에는 질병, 마음이나 사람을 통한 마귀의 고소, 슬픔과 사별, 거짓된 친구, 해고, 불확실한 시대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제시한 시험들로 넘어진다. 에베소서 6:12절에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적들이 나열 되어 있다. 본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심을 더욱 잘 알도록 하자.

제166공과 원수에 대항하여 싸움

성경본문: 여호수아 6:1-20

보조본문: 여호수아 7:1-25 ; 시편 3:1-8

요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함락하였을 때 비로소 확실한 교훈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방황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였다. 그들이 여리고로 입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나 그들이 순종한즉,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 그들이 큰 고함을 발하자 그 성은 무너졌다.

1. 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성에서 나오지 않았던가?(여호수아 2:9-11).

2.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리고의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아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여 볼 때 어떤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3.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번 이스라엘의 적과 싸울 때 자연의 힘을 사용하셨다. 다음 성구를 참고하여 각 경우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 하셨는지 찾아 보라.

여호수아 10:11, 여호수아 10:12-14, 여호수아 24:12, 사무엘상 14:15,16

4.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혹은 성경의 다른 인물이 싸운 그런 물리적인 전쟁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어떤 적이 있는가?

5.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도움이나 승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6. 하나님이 우리의 적으로부터 구원하신 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행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시편 107:2 ; 계시록 12:10,11).

7. 승리를 얻는 비결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이것의 좋은 모범이 된다(행 16:25). 우리가 적과 대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하여 주는가?

8. 예수님께서 세상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너희(제자들)에게 주겠다(눅 10:19)고 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다. 무엇으로 기뻐하여야 한다고 하셨나?(눅 10:20참조)

해 답

1.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함을 알았다. 그 시대의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느헤미야 4:20)라고 약속하셨다.

2.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시며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이 원리는 여리고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3. 순서대로 “큰 덩이 우박”,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함”, “왕벌”, “지진”. 우리가 각 경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

하신 그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4. 우리의 적은 우리를 조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5.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징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징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내적인 보장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핍박이나 유혹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믿음생활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인 적대감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것으로 더 악한 행동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는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것이 실제의 승리가 된다.

6.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간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린양 예수의 보혈과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거나 또는 용기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7.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찬양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며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안다.

8.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야 한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영광스런 승리의 증거를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권능을 행사함으로 기뻐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진리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모든 적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제167공과 구 원

성경본문: 사도행전 12:1-11 ; 고린도전서 10:13 ; 베드로후서 2:9

보조본문: 사도행전 5:17-23 ; 시편 91 ; 로마서 8:37-39

요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 116:8)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신앙 때문에 매를 맞고 불행을 당하고 가족과 분리되고 가정파탄 및 죽음 등을 당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구원을 주시며 사도행전 1장-10장까지를 통하여 기적 같은 구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한 예로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도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하여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 주신다. 본과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 웹스터 사전에서 “구원”을 [자유로운 상태], [풀어 놓은 상태], [구출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고통, 핍박, 혹은 세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면제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13절을 읽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

2. 시편 24:3-5절을 읽고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혹은 거룩한 곳에 설 자의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라. 이런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구원을 바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라.

3.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어떠한 조건에서 구원하시는가?

4.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래 성구를 참조하여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여 주시는지 적어보라.

벧후 2:9 시편 18:48 시편 34:4 시편 54:7 마태복음 6:13

5.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헤롯이 야고보를 살해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하여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자기 생명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로마서 8:28절의 약속을 믿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는가?

6. 천사가 감옥안의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고 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7. 왜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올바른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도 그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기도응답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하는가?

8. 우리가 요절을 참조하면, 시편기자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다. 당신이 특별히 체험한 세 가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라.

해 답

1. 고린도전서 10:13절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2.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자격에 대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삶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3.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영혼을 구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4. 차례대로 “시험”, “적”, “두려움”, “근심”, “악”.

5.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6. 사도행전 12:5절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해 주고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7. 하나님이 기도응답 하시기 전에 처한 상황에 따라 기도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바다위로 걸어 가다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보고 빠지자 “나를 구하소서” 하였을 때 구원하여 주심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의 순수함을 달아보시며 우리가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거나 근심에 처하였을 때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달아 보신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애씀이 요구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기도응답의 애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8. 영원한 죽음, 슬픔, 그리고 생명의 함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의 체험담을 특별한 예를 들어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며, 오늘날에도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제168공과 양식과 물

성경본문: 열왕기상 17:1-7 ; 마태복음 14:15-21

보조본문: 신명기 8:3 ; 욥기 23:12 ; 예레미야 15:16

요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감사일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행 17:2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채워 주시는 분임을 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1.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그릇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가 양식과 물을 얻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여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2.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릇 시냇물이 마른 뒤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 써 보라.

3. 1,2문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좋은 예는 본문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먹일만한 충분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 왔습니다. 음식을 무리에게 분배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찾아 낼 수 있습니까?

4. 물질의 결핍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 6:34)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필요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를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답하여 보십시오.

5. 인간은 양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양식 없이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적 양식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 보라.

6. 디모데전서 4:4-5절을 읽으십시오. 왜 우리가 식사 전에 우리의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7. 요절을 참조하여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다” 는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 답

1.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릇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음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그에게 순종하여야 함을 알라.

2.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으며 거기서 하나님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부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엘리야, 과부, 아들 모두 돌보임을 받았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엘리야, 과부, 아들의 생명은 끝났을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라.

3.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하나님의 제공하심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알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제자들이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나누어 먹었다면 3-4명 정도밖에 먹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는 그것을 축복하실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사용한다면 우리 노력의 영적 가치는 미미할 것이다.

4. 하나님의 신뢰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마 6:33, 시편 37:3, 빌 4:19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기아와 물질의 결핍으로 고통에 처할 때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양식의 공급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슬픔을 주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다면 결국에 영적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5. 교회출석, 개인헌신, 성경암기, 그리고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6. 우리가 감사함으로 양식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7. 일상생활 중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것들을 살펴보라.

제169공과 영 생

성경본문: 누가복음 16:19-31 ; 요한복음 14:1-3

보조본문: 요한복음 17:1-3 ; 요한계시록 21:1-7, 22:1-5

요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7,28)

본 교재의 4분의 1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결핍은 영생인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다. 베드로후서 3:9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다. 우리는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요 3:16).

1. 나사로와 부자의 사회적 직위는 매우 다르나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히 9:27).

2.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난함 때문이 아니며, 부자가 고통 받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은 그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3. 부자는 땅위에 사는 동안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준비할 기회를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왜 그러했나?

4. 부자는 세상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왜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였는가?

5. 요한복음 14:3절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가야만 한

다고 말씀하셨는가?

6.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처소의 가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요약해 보라.(고전 3:11-15)

7.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가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 우리는 앞 공과에서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 주시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가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 답

1. 그들은 죽었다.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었거나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는 십자가 아래 그의 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딤후 5:24).

2.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반면 부자는 자기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마 9:17). 이는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였던 경우를 들어 본 공과와 연관 지어 보라. 이런 경우 당신이 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준비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다.

3. 본문 25절은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가르쳐 준다. 그는 날마다 자기 대문 곁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요 1:9). 부자는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드려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4. 본문 27-28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가 세상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전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나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제의 요지는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요 10:1). 인간을 회개케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많은 권능을 베푸시나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

5.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다. 처소, 즉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관련성구 : 살전 4:13-17 ; 고후 5:1 ; 계 22:14 ; 뱀후 1:10,11 ; 뱀후 3:13

6.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공적은 영적공로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동안 앉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금, 은, 보석의 공적의 예를 제시하여 보라. 그 다음 나무, 풀, 짚의 공적의 예를 들어 보라. 우리의 모든 공적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7. 예수님은 준비하여 영생 얻은 자를 데려가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휴거는 재림 시 승리생활 하는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가? 구약시대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다.

8.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자비, 보호, 인도 등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많은 사람도 받는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행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